

오순절 후 스무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8 장 “주 예수여, 은혜를” (통일 48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2 번 (시편 9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빌레몬서(Philemon) 1:8-19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찬양대
설 교 Sermon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I Appeal to You on The Basis of Lov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370 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45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고, 근신하여 기도하지도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은 죄성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개역개정 **몬19-10**)

“Yet I appeal to you on the basis of love. I then, as Paul – an old man and now also a prisoner of Christ Jesus – I appeal to you for my son Onesimus, who became my son while I was in chains.” (NIV **Philemon1:9-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15 (주일)	10/16 (월)	10/17 (화)	10/18 (수)	10/19 (목)	10/20 (금)	10/21 (토)
	왕상18	왕상19	왕상20	왕상21	왕상22	왕하1	왕하2
본문	살전1	살전2	살전3	살전4	살전5	살후1	살후2
	겔48	단1	단2	단3	단4	단5	단6
	시104	시105	시106	시107	시108,109	시110,111	시112,11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0/18수 오후7:30)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1:1-5)
토요 새벽기도회 (10/21토 오전6:30)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사119:121-128)

지난 주일(10/8) 말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딤후 3:3-8)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딤후 3:5)고 말씀했습니다. 즉,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는 표현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외부에서부터 우리의 내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밖으로 역사하셔서, 죄로 인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에게 요구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릇된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본문에서 밝히는 구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서, 1)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2)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놀라운 “은혜의 총합인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